

# 말씀의 샘

##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장 21~23절>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새겨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 놀라운 약속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계획의 약속이며 둘째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성탄절의 의미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정말로 중요합니까.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계속 보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누리며 살기 위해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이,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의 눈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입니다. 이 힘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열정이라는 단어 Enthusiasm은 헬라어 ενθεος에서 왔습니다. 열정은 될 것 같이 보일 때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헬라어 ενθεος는 εν "안에(in)"과 θεος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즉,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초기 기독교의 신앙적 용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임마누엘을 누렸습니까. 낙심할 상황에서 열정은 왜 생길까요? 하나님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 약속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위대한 영적약속과 비밀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의 축복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하나님을 삶 가운데 항상 발견하는 믿음의 눈은 어떻게 열리게 되는걸까요?

**첫째는,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희한하게도 성령충만하면 이 눈이 열리지만 성령충만이 소멸되면 눈이 닫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삶에 현실만 보이고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거든 성령 충만이 떨어진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셔서 믿음의 열정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롬 8:24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소망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집사라는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진가가 어디서 나오니까?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돌이 날아오고 그를 재판하는 그 긴장되고 두려운 현실을 뛰어넘어 영적인 눈이 환하게 열린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안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교회사에 길이 남는 아름다운 믿음의 순교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전과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불과 50일 만에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무서워서 여자 아이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이 50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을 받자마자 마가다락방을 박차고 나와서 솔로몬 행각으로 향합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 동쪽의 뒤뜰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토론하던 곳, 수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여드는 곳입니다. 거기에 3000명이나 모여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복적대던 곳이었습니까? 50일 만에 이렇게도 겁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 두려움이 완전히 떠나간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도 떠날 만큼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누렸던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수많은 사람도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때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현실의 어려움이 보이며 고민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배웁니다. 마지막 때는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승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기름 등불 준비 하는 자이며 그들이 믿음의 눈을 열고 믿

음의 원리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둘째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요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경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부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잘 인도함을 받다가 갑작스런 흉년을 외지에서 경험하면서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애굽행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자기 아내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지는 않을까하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와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왕 바로로부터 나오게 되고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된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롯과의 다툼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롯을 소동 땅으로 보내고 난 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 13:14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17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18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약속을 받은 다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시 안정을 찾게 됩니다. 두려움이 떠나고 믿음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롯이 떠난 빈자리도 하나님으로 채웠습니다. 그 후, 얼마 뒤 소돔과 고모라 주변 남방 연합국과 메소포타미아 주변 북방 연합국간에 큰 전쟁이 났고 승리한 북방 연합군은 조카 롯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받은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북방 연합군을 추격합니다. 정상적인 눈으로 보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행동이 가능했을까요? 왜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걸까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담대하게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 그리고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가 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보면, 하나님이 나한테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느낄 때, 묵상중에도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시듯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후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목격한 담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는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승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요4:23~24),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모두 누리며 살아가는 두란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 2015. 12. 6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 2015. 12. 13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요한복음 1장 9~14절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말씀이 실체가 되는 신앙"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7:3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7:30

